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권수혜*, 강효정**, 윤순철***, 김영숙*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고신대학교 박사과정***

The Convergent Influence of Knowledg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Su-Hye Kwon*, Hyo-Jeong Kang**, Soon-Chul Youn***, Young-Suk Kim*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Dept. of Nursing, Dongw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t. of Nursing, Kos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돌봄태도 및 노인간호실천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15년 8월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연구대상자는 B 광역시 소재 3개의 간호학과에서 재학 중인 임상실습을 경험한 남녀 간호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노인간호실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및 노인간호실천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노인돌봄태도, 학년, 노인에 대한 지식이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요인들에 의한 노인간호실천 설명력은 27.4%이었으며, 노인간호실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노인돌봄태도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 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노인돌봄태도를 함양하고 노인에 대한 지식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인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학생,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노인간호실천,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knowledg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55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in three nursing schools in B city, with the measurement of Fact on Aging Quiz Part I,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knowledge of, caring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geriatric nursing practice were caring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grade, and knowledge of the elderly, and these factors explained 27.4% of the varia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effective educational strategies need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foster positive caring attitude towards and knowledge of the elderly in order to improve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 Knowledge, Attitude, Geriatric Nursing Practice, Convergence

본 연구는 2015년도 고신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Received 26 January 2016, Revised 25 March 2016

Accepted 20 April 2016, Published 28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Young-Suk Kim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Email: 114009@kosin.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빠른 증가로 1970년대에 3.1%에 불과하던 노인인구는 2013년에 12.2%에 달하였고 2050년에는 37.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비율은 2012년 0.9%에서 2030년 2.5%, 2050년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1].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장수하는 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2], 특히 우리나라 노인 중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88.5%,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도 68.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노인의 유병기간의 연장에 따른 병원 이용률이 증가하여 노인의 평균 병원 재원 일수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4],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재원 일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5]. 이처럼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간호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 및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인환자는 여러 가지 만성적·퇴행성 질병을 동시에 보유하며, 정년퇴직, 배우자 상실, 소외 등 다양한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6]. 따라서 전반적 기능상태, 인지기능, 심리, 사회적, 영적 기능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간호를 해야 하며 의사소통 측면에서도 노인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7]. 융복합적 시대에 이러한 노인환자를 간호하는 목표는 단순히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노인 대상자의 남은 기능을 최대화하고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노인간호의 실천이 요구된다[8].

노인간호실천이란 노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간호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실천을 의미하며[9], 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 정서적으로 황폐에 이를 수 있는 노인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남아 있는 날들을 보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남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0]. 따라서 질 높은 노인간호실천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질병치료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지식,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형성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8]. 더욱이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이나 마음가짐으로서의 노인돌봄태도는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넘어 관심, 따뜻함, 성의, 부드러움, 편안함, 도움, 함께함과 같은 돌봄 태도요소를 포함하고 있어[11] 이러한 노인간호실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긍정적으로 함양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라 생각된다.

장차 노인간호실천을 담당해야 할 예비간호사인 간호학생들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노인간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해 학생시절부터 노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해 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 노인을 위한 긍정적 돌봄태도를 정립함으로써 질적인 노인간호실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은 간호교육자의 책무일 것이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최근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노인간호실천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권윤희 등[12]의 연구결과는 노인간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며, 노인에 대한 편견과 지식결여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조장하며 결국 노인간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임상영역에 노인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간호에 대한 교육이 미비한 간호사들은 노인환자와 그 보호자를 돌보는 업무에서 대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3]. 따라서 질적인 노인간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래 노인간호실천의 주역을 담당할 예비간호사인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돌봄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및 노인간호실천의 수준과 이들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간호학생들을 위한 보다 적절한 노인간호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진행된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노인간호실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인간호실천의 관계 및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들이 소수 있을 뿐이며[12,14,15], 이 역시 노인돌봄태도가 아닌 일반적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이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현재까지 2편이 보고되었다[16,17].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18,19]와 지식, 태도, 행동을 함께 조사한 연구[20,21]가 다소 보고되었을 뿐 현재까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돌봄태도나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돌봄태도, 노인간호실천을 함께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과정 동안 어떤 수준의 노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돌봄태도를 보이며 어떤 수준에서 노인간호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적 시대를 살아가며 미래 노인간호를 담당할 예비간호사인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돌봄태도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간호학생을 위한 보다 적절한 노인간호교육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지식, 노인돌봄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노인간호실천 정도 및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노인간호실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 3개의 4년제 간호학과에서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한 남녀 3, 4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α),0.05, 검정력($1-\beta$)은 .95, 효과 크기(f_z)는 중간 크기인 .15, 예측요인 16개로 계산하였을 때 204명이 산출되었고 미응답률을 고려하여 26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적절한 5부를 제외한 255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노인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는 Palmore[22]에 의해 개발되고 수정 보완된 Fact on Aging Quiz Part I (FAQ I)을 Lee[23]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개 문항으로 노인에 대한 신체/생리적 측면(11개 문항), 심리적 측면(6개 문항), 가족/사회적 측면(8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짝수 문항은 모두 참이고, 홀수 문항은 모두 거짓으로,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Lee[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8이었다.

2.3.2 노인돌봄태도

본 연구에서는 Sanders,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24]의 노화의미분별척도와 Maxwell과 Sullivan[25]이 개발한 Empathy and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도구를 기반으로 Jung[26]이 수정 보완한 노인돌봄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총 17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척도로서 최저 17점, 최고 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돌봄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으며 Jung[2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1$ 이었다.

2.3.3 노인간호실천

본 연구에서는 Choi[9]가 개발한 총 16개 문항의 노인 간호실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에 있는 총 16개의 문항 중 간호학생들이 입장에서 경험하기 힘든 입종과 무의식 환자가 포함된 2개 문항을 삭제하여 총 1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전혀 하지 않는다” 1점부터 “항상 하고 있다” 4점으로, 측정 범위는 최저 14점, 최고 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 B광역시 소재 K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 번호 KU IRB 2015-0016)을 받았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다. 해당 대학의 간호학과장과 학과대표에게 동의를 구한 후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훈련된 연구보조원 1인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업시간 이외의 자유 시간에 대상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설문지 수납함에 자율적으로 넣게 한 후 수거하였다.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며, 미 응답 항목이 많은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최종 25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평균, 평균편점,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으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에 대한 정도는

t-test, ANOVA와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55명이었으며 여학생이 234(91.8%)명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20-22세가 183명(71.8%), 23-25세가 50명(19.6%), 26세 이상이 22명(8.6%)순이었다. 학년은 4학년이 153명(60.0%)이었고 종교는 기독교가 117(45.9%)로 가장 많았다. 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대상자가 201명(78.8%), 현재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229명(89.8%), 과거에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141명(55.3%)로 나타났다. 노인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가 237명(92.9%), 평소에 친분이 있는 노인이 있는 경우가 151명(59.2%)으로 나타났다. 노인간호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4명(56.5%)이었고, 노인간호를 선호하는 경우가 140명(54.9%)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는 1점 만점에 평균 0.47 ± 0.92 점이었고, 각 영역별 지식정도는 신체 영역이 0.60 ± 0.13 점, 심리영역 0.51 ± 0.17 점, 사회 영역 0.27 ± 0.15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간호학생의 노인돌봄태도

간호학생의 노인돌봄태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9 ± 0.37 점이었다. 노인돌봄태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노인을 돌보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이었으며 “노인을 돌볼 때 친절하다”, “노인을 돌보는 일에 나는 긍정적이다”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돌봄태도 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노인을 돌보는 일이 재미있다”였다<Table 3>.

<Table 1> Knowledge, Attitudes toward caring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Level by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N=255)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Knowledge | | Attitudes toward caring | | Geriatric Nursing Practice | |
|---|---------------|------------|-----------|------------|-------------------------|------------|----------------------------|------------|
| | | | Mean±SD | t or F (p) | Mean±SD | t or F (p) | Mean±SD | t or F (p) |
| Gender | Male | 21(8.2) | 0.50±0.09 | 1.49 | 3.42±0.52 | -0.61 | 3.29±0.46 | -1.28 |
| | Female | 234(91.8) | 0.47±0.09 | (.138) | 3.50±0.36 | (.549) | 3.40±0.37 | (.297) |
| Age(yr) | 20-22 | 183(71.8) | 0.47±0.09 | 0.17 | 3.49±0.38 | 0.29 | 3.38±0.37 | 0.10 |
| | 23-25 | 50(19.6) | 0.48±0.09 | (.847) | 3.47±0.35 | (.746) | 3.40±0.41 | (.902) |
| | 26 | 22(8.6) | 0.47±0.09 | | 3.54±0.33 | | 3.42±0.43 | |
| | Mean±SD | 22.42±2.74 | | | | | | |
| Grade | 3rd | 102(40.0) | 0.46±0.09 | -1.81 | 3.48±0.39 | -0.42 | 3.28±0.35 | -4.02 |
| | 4th | 153(60.0) | 0.48±0.09 | (.077) | 3.50±0.35 | (.676) | 3.46±0.38 | (<.001) |
| Religion | Christian | 117(45.9) | 0.48±0.09 | 0.93 | 3.51±0.36 | 1.27 | 3.36±0.38 | 1.16 |
| | Catholic | 9(3.5) | 0.43±0.12 | (.448) | 3.56±0.35 | (.281) | 3.44±0.29 | (.328) |
| | Buddhist | 28(11.0) | 0.47±0.10 | | 3.58±0.35 | | 3.52±0.37 | |
| | None | 70(32.1) | 0.47±0.10 | | 3.44±0.39 | | 3.37±0.39 | |
| etc | 4(1.6) | 0.43±0.06 | | 3.34±0.06 | | 3.45±0.16 | | |
| Living grandparents | Yes | 201(78.8) | 0.47±0.10 | -0.33 | 3.48±0.36 | -0.28 | 3.33±0.40 | -0.77 |
| | No | 54(21.2) | 0.48±0.08 | (.740) | 3.52±0.40 | (.778) | 3.40±0.39 | (.462) |
| Current cohabitation with the elderly | Yes | 26(10.2) | 0.47±0.09 | -0.46 | 3.47±0.39 | 0.84 | 3.34±0.40 | 0.05 |
| | No | 229(89.8) | 0.47±0.09 | (.649) | 3.49±0.37 | (.402) | 3.39±0.38 | (.964) |
| Cohabitation with the elderly in the past | Yes | 141(55.3) | 0.47±0.09 | -0.65 | 3.54±0.35 | 2.22 | 3.39±0.37 | 0.07 |
| | No | 114(44.7) | 0.48±0.09 | (.517) | 3.43±0.38 | (.028) | 3.39±0.39 | (.946) |
| Volunteer experience for the elderly | Yes | 237(92.9) | 0.47±0.09 | 0.03 | 3.51±0.36 | 2.84 | 3.40±0.37 | 2.07 |
| | No | 18(7.1) | 0.47±0.11 | (.973) | 3.26±0.36 | (.010) | 3.21±0.42 | (.040) |
| Elderly acquaintance | Yes | 151(59.2) | 0.48±0.09 | 0.79 | 3.57±0.36 | 4.03 | 3.42±0.37 | 1.42 |
| | No | 104(40.8) | 0.47±0.09 | (.427) | 3.38±0.36 | (<.001) | 3.35±0.39 | (.157) |
| Received education in geriatrics | Yes | 144(56.5) | 0.49±0.09 | 3.22 | 3.52±0.34 | 1.52 | 3.43±0.37 | 2.26 |
| | No | 111(43.5) | 0.45±0.09 | (.001) | 3.45±0.40 | (.128) | 3.33±0.39 | (.025) |
| Preference for geriatric nursing | Yes | 140(54.9) | 0.48±0.09 | -0.52 | 3.65±0.33 | 6.09 | 3.47±0.38 | 1.57 |
| | No & not sure | 105(45.1) | 0.49±0.11 | (.604) | 3.22±0.34 | (<.001) | 3.33±0.42 | (.125) |

<Table 2> Nursing Student's Knowledge of the Elderly (N=255)

| Variables | Min | Max | Mean | SD |
|----------------------|-------------|-------------|-------------|-------------|
| Knowledge | 0.24 | 0.72 | 0.47 | 0.92 |
| Physical aspect | 0.27 | 0.91 | 0.60 | 0.13 |
| Psychological aspect | 0.00 | 1.00 | 0.51 | 0.17 |
| Social aspect | 0.00 | 0.75 | 0.27 | 0.15 |

3.4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39±0.38점이었다. 노인간호실천 문항 중 가장 실천을 많이 하고 있는 문항은 “노인에게서 손을 잡아주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지지해 준다”이었고 “노인과 의사소통 시 분명하고 쉬운 말로 천천히 한다”, “노인의 호소를 진지한 태도로 듣는다” 순으로 나타났고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활동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일상 생활 동작유지를 위한 재활 간호를 시행한다 ”이었다 <Table 4>.

〈Table 3〉 Scores for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Items of the Scale (N=255)

| Item content | M±SD |
|--|------------------|
|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 3.49±0.37 |
| Valuable | 4.07±0.66 |
| Kind | 3.94±0.61 |
| Positive | 3.89±0.61 |
| Important | 3.86±0.67 |
| Beautiful | 3.82±0.64 |
| Generous | 3.78±0.60 |
| Flexible | 3.78±0.56 |
| Warm | 3.75±0.70 |
| Responsible | 3.75±0.64 |
| Fair | 3.72±0.67 |
| Empathetic | 3.67±0.67 |
| Active | 3.63±0.70 |
| Satisfied | 3.59±0.63 |
| Comfortable | 3.40±0.70 |
| Optimistic | 3.38±0.61 |
| Enjoyable | 3.33±0.58 |
| Amusing | 3.29±0.70 |

〈Table 5〉 Correlations in Knowledge, Attitudes toward Caring, and Nursing Practice Level for the Elderly (N=255)

| Variables | Knowledge | Attitudes toward caring | Geriatric Nursing Practice |
|----------------------------|-----------|-------------------------|----------------------------|
| Knowledge | 1 | | |
| Attitudes toward Caring | .15* | 1 | |
| Geriatric Nursing Practice | .22** | .46** | 1 |

* $p < .01$, ** $p < .001$

〈Table 4〉 Score for Geriatric Nursing Practice according to Items of the Scale (N=255)

| Item content | M±SD |
|--|------------------|
| Geriatric Nursing Practice | 3.39±0.38 |
| I support the elderly, holding hands or contacting physically. | 3.67±0.55 |
| I talk to the elderly slowly with easy expressions when I communicate with them. | 3.62±0.49 |
| I listen to the elderly's plea with eager attention. | 3.54±0.55 |
| I don't hurry or rush the elderly during education. | 3.53±0.56 |
| I listen to the elderly's plea by expressing interests. | 3.51±0.54 |
| I help the elderly by means of safety by cleaning up environment. | 3.50±0.59 |
| I give the elderly opportunities to talk about their thoughts and experiences freely. | 3.44±0.60 |
| I provide praise and encouragement when the elderly understand well during education. | 3.42±0.60 |
| I repeat again when the elderly don't react promptly during education. | 3.38±0.58 |
| I spend more time to care for the elderly compared to the younger patients. | 3.37±0.69 |
| I provide new information during health education for the elderly. | 3.19±0.61 |
| I teach the elderly the way that they do for themselves during education. | 3.15±0.64 |
| I provide the elderly enough time to question when I teach them new nursing methods. | 3.07±0.74 |
| I provide rehabilitative nursing to the elderly who are not able to move for themselves to maintain everyday activities. | 3.03±0.75 |

*possible range 1-5

3.5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노인간호실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인간호 수강여부($t=3.2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노인돌봄태도는 과거에 노인동거 경험($t=2.22, p=.028$), 노인 자원 봉사경험($t=2.84, p=.010$), 친분노인 유무($t=4.03, p<.001$), 노인간호선호여부($t=6.0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은 학년($t=-4.02, p<.001$), 노인자원봉사경험($t=2.07, p=.040$), 노인간호 수강경험($t=2.26, p=.02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3.6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돌봄태도($r=.15, p<.001$),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간호실천($r=.22, p<.001$),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r=.46, p<.0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5>.

3.7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

〈Table 6〉 Factors Influencing Geriatric Nursing Practice

(N=255)

| Variable | B | SE | β | t | p | F | R ² |
|-------------------------|-------|-----|---------|-------|-------|--------|----------------|
| Constant | 1.515 | .21 | | 7.106 | | | |
| Attitudes toward caring | .449 | .06 | .44 | 7.867 | <.001 | 39.068 | .237 |
| Knowledge | .640 | .23 | .16 | 2.839 | | | |

해 디자인된 회귀모델의 공차는 .98로 산출되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022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회귀모델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Durban-Watson 값 역시 1.92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노인돌봄태도, 노인에 대한 지식 이 두 변인은 노인간호실천을 2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9.068$, $p<.001$) <Table. 6>.

4. 논의

본 연구는 미래 노인간호를 담당할 예비간호사인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돌봄태도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보다 적절한 노인간호교육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는 1점 만점에 평균 0.47 ± 0.92 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20]의 연구에서 평균 0.49 ± 0.11 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won 등[12]의 연구에서 평균 0.49 ± 0.10 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과정 중에 노인간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노인간호학은 전공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수강되고 있으며 국가고시 과목이 아니므로 비중 있게 다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9]. 하지만 노인인구의 증가, 병상 점유율의 증가로 인해 노인환자를 간호할 기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질적인 노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간호

학을 간호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더욱 비중 있는 과목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영역별 지식 정도는 신체적 영역에서 심리적, 사회적 영역보다 그 지식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8, 19, 20], 간호학생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비교한 Kim 등[27]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로 간호학생들이 노화와 관련된 가족적, 심리적, 사회적 지식이 다소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과정의 내용 중 노인간호의 이슈와 경향, 노인간호의 정책, 간호계획, 전문직으로서의 노인간호 등에서 주로 노인의 신체적 건강문제를 편중되게 다루고 있고, 심리적, 가족 및 사회적 영역에 대한 교육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 없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어[27], 교과과정 편성 시 노인간호학 강의의 시수의 고려와 함께 교육내용 또한 심리, 사회적인 영역의 강화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돌봄태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9 ± 0.37 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돌봄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같은 도구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Joung[26]의 연구에서 4.03 ± 0.38 점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시대적으로 핵가족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노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간호사에 비해 노인을 돌보는 경험이 제한되어 노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노인돌봄태도에 대한 문항별 비교에서도 모든 문항이 3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가장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노인을 돌보는 일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였다. 노인에 대한 돌봄태도는 노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노인을 가족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보살피면서 돌봄(caring)의 대상으로 보느냐, 또는 아무 사고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management)하는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노

인돌봄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9]. 외국의 경우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 등 건강한 노인을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실습지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간호대학은 대부분 실습장소로 노인병동이나 요양원과 같이 질환에 노출된 노인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이러한 요인이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돌봄태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18],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노인대학,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한 노인과의 직·간접적 돌봄의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28].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39±0.38점으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간호실천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같은 도구로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won 등[12]의 연구에서 평균 3.54점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들이 주로 신체적, 인지적으로 심각한 취약성을 가진 만성질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간호학생들에 비해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노인간호실천 문항 중 가장 실천을 많이 하고 있는 문항은 “노인에게서 손을 잡아주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여 지지해 준다”로 신체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감성을 활용하여 노인을 이해하며 노인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자 하는 간호학생의 감성지능을 활용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29]. 요양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을 조사한 Kang 등[30]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노인간호실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에 근거해 볼 때,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감성지능을 활용하여 간호학생들이 노령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적 장애, 사회경제적 고충, 정서적으로 황폐화에 이르게 되는 노인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31]. 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진실한 공감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감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간호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에 노인환자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감성지능 증진 교육과정 개발 또한 필요하리라 본다. 반면에 가장 낮은 노인간호실천을 보

인 항목은 “활동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일상생활 동작유지를 위한 재활 간호를 시행한다”와 “노인에게 새로운 간호방법을 가르칠 때 질문할 시간을 준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노인들에게 적합한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간호방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간호학생의 미숙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이 외상 노인환자 간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며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간호방법에 대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는 노인간호 교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등[27]의 연구에서는 노인간호 실습여부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교육기관에서 노인간호 교과목의 수강과 실습을 통한 노인에 대한 지식의 강화가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노인환자는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을 동시에 보유하며, 질병의 증상 및 징후가 환자마다 비전형적이고 만성적이며 퇴행성인 경우가 많다[7, 32]. 그러므로 노인환자에게 개별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간호학생들이 노인의 전반적인 인지, 신체, 사회, 심리, 영적 기능을 포함한 총체적인 노인간호 지식을 반복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특히 만성질환 노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으며, 특히 질병관리와 교육, 간병 방법,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으므로[33], 간호학생을 위한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에 노인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돌봄태도 정도는 과거에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경험, 평소 친분이 있는 노인이 있는 경우, 노인간호를 선호하는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16]의 연구에서 노인과의 거주경험, 평소 친한 노인 유무, 노인 간호 선호 여부, 그리고 노인 관련 교육이 노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돌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과의 동거경험, 돌봄경험, 교육경험인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돌봄태도란 노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는 달리 노인의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와 친근함, 헌신, 관심 등을 포함한 정서적 관계를 의미하므로[17], 봉사활동과 같은 행위와 함께 친밀한 동거관계나 주변 노인과의 친분, 그리고 노인에 대한 정서적 개방성 등이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겠다. 또한 이것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미래의 건강제공자인 간호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노인돌봄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 체험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돌봄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간호학 실습 기회의 증가가 필요하며,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건강한 노인 돌봄 경험, 노인병동, 요양원을 통한 질병에 노출된 노인 돌봄 경험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인시설 봉사 참여, 성공적인 노화 강좌 참여, 노인 면담 등을 이용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정서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정도는 학년,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경험, 노인간호 교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won 등[12]의 연구에서 연령, 임상경력, 최근 노인관련 교육 경험, 노인과 동거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 Kim[16]의 연구에서 연령, 근무부서, 노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 경험 유무, 노인과의 거주경험 유무, 평소 친한 노인 유무, 노인 간호 선호 여부, 노인관련 교육이 노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상이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과의 접촉경험과 노인관련 교육의 경험은 노인간호실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임상 실습 외에 노인과의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사체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노인과의 긍정적이며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지식, 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전문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실천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12]와 종합병원 및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Yoon[15]의 연구에서 노

인에 대한 지식, 태도, 케어실천행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Kim[1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과 긍정적인 돌봄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참여적 교육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회귀분석 결과 노인돌봄태도, 노인에 대한 지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23.7%이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39.068, p < .001$). 이러한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 영향요인을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의 제한은 있지만, Kwon 등[12]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 태도, 노인관련 교육경험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간호실천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돌봄태도($\beta = 0.46$)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노인돌봄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낸 경우가 노인과 동거 경험,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경험, 친분이 있는 노인이 있는 경우, 노인간호를 선호하는 경우로 즉, 노인과의 친밀하고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 노인에 대한 돌봄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에게 노인과 직,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긍정적 참여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돌봄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노인간호실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회는 노인간호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과정인 대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시설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접촉점 마련으로 가능하리라 보며, 젊은 세대와 노인들과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여 양측에 모두 긍정적인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지식($\beta = 0.13$)이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얻은 노인에 대한 지식이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14], 효과적인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

겠다. 노인은 다양한 건강문제와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근골격계 변화로 인한 근력감소, 보행장애, 감각기능장애, 운동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34]. 간호사들은 이러한 노인들의 치료, 재활 및 적응훈련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은 노인간호의 핵심적 요소라 생각되며, 특히 여성노인에게서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35, 36], 수면의 질 저하나 만성통증, 자살의도 등도 노인의 삶의 질에 큰 위협이 되므로[37, 38] 노인에 대한 정신건강, 통증 및 수면관리 역시 노인간호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간호 교과목 운영에 있어 노인에 대한 일반적 지식에서부터 노인질환별 치료 및 간호와 관련된 심화과정까지 단계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현장중심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노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노인간호실천을 증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기존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만을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돌봄태도 및 노인간호실천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돌봄태도 및 노인간호실천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노인돌봄태도, 학년, 노인에 대한 지식이 노인간호실천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영향 높은 요인은 노인돌봄태도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노인간호실천을 23.7%(F= 39.068, $p<.001$)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의 노인간호실천 영향요인을 찾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인간호 교육을 통한 지식의 증진과 다양한 경로를 통한 노인과의 접촉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간호실천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지역의 간호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확대 및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돌봄태도를 함양함으로써 노인간호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2015 Research Grant from Kosin University.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n the aged in 2013.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ead&aSeq=308688, March 3, 2014.
- [2] M. H. Kim, K. R. Shin, M. H. Kim, K. R. Shin, "Geriatric nursing and welfare", pp. 413, Donginbook. 2006.
- [3] N. M. Hwang, S. M. Chae, J. H. Lee, H. J. Jeon, "Development of the model for organizing primary care in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pp. 29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 [4] K. H. Jeoung,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Medical for Elderly Inpatients-Through Compared with Non-elderly Pati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3, pp. 219-225, 2012.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rveys on Patients in 20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 [6] K. H. Yang, M. G. Jeong "Mediating Effects According to Family Type 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Material Factors and

- Dep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7, pp. 437-444, 2015.
- [7] Y. Eun, K. A. Song, O. J. Park, S. H. Go, M. H. Park, J. S. Kim, Y. S. Kim, J. H. Lee, “Introduction to Advanced Gerontological Nursing”, Hyunmoonsa, 2010,
- [8] H. S. Jeong, S. Y. Han, “The Effects of an Elderly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3, pp. 1453-1466, 2012.
- [9] H. J. Choi, “The Research on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for old age pa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02.
- [10] Y. H. Cho, “Care of the older adult”, pp. 440, Hyunmoonsa, 2009.
- [11] K. I. Park, J. A. Kwon, J. K. Kim, “Influence of the Elderly Caregivers’ Conflict and Care Attitudes in Elderly Nursing Home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 Around of job stress’s mediating effect”,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63, No. 6, pp. 149-173, 2012.
- [12] Y. H. Kwon, H. Y. Lee, S. S. Hwang,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of the nurses-towards the Elderly in Geriatric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785-5791, 2013.
- [13] J. Y. Choi, Y. J. Lee, “Research on Nurses’ Stress for Elderly care and Stress -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8, pp.275-286, 2012.
- [14] C. N. Nam, Y. H. Kwon, “The Relationship with the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of the Nurses-Towards the Elderly in Geriatric Hospital”,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3, No. 1, pp. 39-50, 2009.
- [15] S. H. Yoon, “The Relations of Nurses’ Job Stress and Knowledge, Attitude and Care Behavior for Elderly Pati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5, No. 4, pp. 593-600, 2009.
- [16] Y. S. Kim, “Caring attitudes and nursing practices for the elderly among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2.
- [17] J. M. Yang, “Influence of a Senior Simulation Experience on New Nurses’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toward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3.
- [18] K. M. Yang, H. E. Oh, J. S. Kim, Y. J. Bak,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Vol. 27, No. 1, pp. 149-152, 2002.
- [19] E. J. Lee, I. W. Kang, “Student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0, No.20, pp. 183-194, 2006.
- [20] M. H. Kim,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5, No. 4, pp. 113-126. 2011.
- [21] K. A. Choi,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6.
- [22] E. B. Palmore, “The facts on aging quiz(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p.1-83, 1998.
- [23] C. J. Lee, “Nursing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Old Adult General Hospital and Geriatric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Chuncheon, 2003.
- [24] G. F. Sanders, J. E. Montgomery, Jr. Pittman,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3, No. 1, pp. 59-70, 1984.
- [25] A. J. Maxwell, N. Sullivan, “Attitudes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among family practice residents”.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 society*, Vol. 28, No. 8, pp. 341-345, 1980.
- [26] H. Y. Joung,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Program in Elderly Care Attitudes of the employees working for Elderly Care Facilities, the understanding of the aged, and job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Chuncheon, 2011.
- [27] S. Y. Kim, K. M. Yang, H. E. Oh, J. S. Kim,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 3, pp. 21-36, 2002.

[28] M. S. Lee, S. N. Yang, Effect of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Senior Citize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8, pp. 265-273. 2012.

[29]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243-74, 2002.

[30] H. S. Kang, K. W. Sung,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17, No. 1, pp. 29-37, 2015.

[31] K. S. Han, Y. J. Oh, S. J. Lee, S. K. Cha, H. C. Kang, “Influencing Factors on Emotional Competencies of Nurse”,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Vol. 17, No. 1, pp.19-25, 2009.

[32] Jin-Kyoung Park, “Convergence factors among their physical state, function and activities influencing on the cognition of elderly residents in a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53-162, 2015.

[33] K. H. Wang,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Needs of the Aged Chronic Patients and Their Famil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 No. 1, pp. 59-74, 2007.

[34] Consumer Safety Department, “A survey on the safety accidents of elderly”, Korea Consumer Agency, 2007.

[35] S. H. Lee, “Gender Difference in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in Commun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2, pp. 523-535, 2013.

[36] Myoung-Jin Kwon,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ogni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171-176, 2015.

[37] J. Y. Lee, Y. S. Moon, “Effects of chronic pain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uicide in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445-458, 2015.

[38] S. A. Y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hysical Function, Quality of Sleep and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a Commun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5, pp. 335-345, 2013.

권 수 혜(Kwon, Su Hye)



- 1999년 8월 : 유트랙트 대학교(간호학 석사)
- 2013년 2월 : 고신대학교(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여성, 질적연구방법
- E-Mail : 113009@kosin.ac.kr

강 효 정(Kang, Hyo Jeong)



- 2012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임상간호 석사)
- 2015년 2월 ~ 현재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14년 9월 ~ 현재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 조교수
- 관심분야 : 재활, 성인, 아동
- E-Mail : ice9519@dist.ac.kr

윤 순 철(Yoon, Soon Chul)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지역사회 간호학 및 간호관리학 석사
- 215년 2월 ~ 현재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노인, 성인
- E-Mail : 64yisc@hanmail.net

김 영 숙(Kim, Young Suk)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간호학 박사)
- 관심분야 : 종양, 노인, 다문화
- 2014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E-Mail : 114009@kosin.ac.kr